

사찰 홈페이지 'SMART' 하게 변신

봉은사·한마음선원 신도와 쌍방향 소통

현대사회는 손안의 스마트 미디어로 전 세계의 수백만 개의 정보를 접하는 시대다. 스마트 기기들은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새로운 문화는 기존에 모바일을 고려하지 않는 사찰 홈페이지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봉은사 반응형 웹 시스템 홈페이지(사친 위쪽)와 한마음선원 포털형 홈페이지

반응형 웹, 모든 스마트 기기 '착적'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최근 시대 흐름에 맞춰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2014년 1월부터 6개월 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7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번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다. 반응형 웹 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PC 등 미디어기기에 상관없이 구동이 가능하다.

네이버 부럼집 않은 포털 기능 갖춰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1월 개통한 홈페이지는 사찰 최초로 방대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사이트와 연결되는 포털 기능을 지녔다.

한마음선원의 새 홈페이지는 기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내용과 함께 개별 방문 검색서비스, 사진 및 영상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보다 강화됐다. 특히 대형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각도로 조망한 온라인 박물관 '임의 소식', 육성법문을 담은 '오디오 도서관', 다양한 영상자료가 구비된 '한마음 TV' 등으로 이뤄져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는 대부분의 기능이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클릭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여기에 한마음선원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8월 초 오픈했으며 한마음 eBook 앱을 개발해 〈뜻으로 풀 천수경〉〈영원한 나를 찾아서〉 등 7권의 전자책을 업데이트했다.

신도와 소통 중점 둔 온라인 포교
두 사찰의 홈페이지의 특징은 뛰어난 기능 뿐만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신도들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봉은사의 경우 신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봉은사특유의 쌍방향 커뮤니티를 개발했으며, 한마음선원은 모바일메신저를 개발 중에 있다.

봉은사의 '봉은사톡'은 각 신도 회원의 신형 소통 공간인 '봉은톡'과 문화와 사중행사를 공유하는 '공장통', 템플스테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템플톡'으로 구성돼 있어 나이가 많은 신도들도 쉽게 사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음선원 메신저는 모바일기기로 사찰일정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과 수행상담을 올리는 친견실메신저 등으로 구성돼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마음선원 미디어실 오광은 과장은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들이 쏟아져 사찰 홈페이지로만은 불자들의 수행이나 교양교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며 "모바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천 '송도' 서 제8차 아시아종교인명화회의(ACRP) 총회가 개막한 8월 26일, 어린이·청년 등을 포함한 11명의 아시아 종교인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하며 공동기도를 문 낭독했다. 기도문에는 "정치지도자들이 이익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며 연민과 정의가 깃든 세상이 되길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사 2면> 사진=박재원 기자

불교계, 인천 아시안게임서 전범 펼친다

불교관 운영·사찰음식 홍보 주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 10여 일을 앞둔 가운데 불교계가 아시아권 선수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고 인천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사)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장연)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경기에 참가하는 불교국가 선수원들이 신앙생활과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교관을 운영한다.

참여사찰 및 기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인천불교조계종사암 연합회, 인천비구니연합회, 인천불교연합회, 인천불교회관, 인천서구 불교회관, 인천경기포교사단 등으로, 지난 8월 28일 불상과 후불탱화, 다기(茶器)를 비롯해 템플스테이·불교 영문홍보책자를 비치하고 선수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불교관

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연합회 소속 스님, 포교사, 다도요원이 각 1명과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2명, 자원봉사자 4명이 배치된다. 프로그램은 다도체험, 만다라그리기, 명상, 연꽃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아시아음식축제 10여국 참가 불교관, 다도·만다라 등 체험 서포터즈, 선수 응원 및 봉사

인천불교총연합회와 조계종사암 연합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1000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8월 31일 '1000일 기도 회향대법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7일 '인천자

비나눔공동체' 발대식을 연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종호)는 대회 기간 128개 팀, 6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불자서포터즈'를 파견한다. 불자서포터즈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9월 19일~10월 4일)와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10월 18~24일) 기간 △불자 선수 응원 △내·외국인 안내 △불교국가 선수 응원(비인기종목) △지역 봉사활동(터미널과 향만 등 안내, 환경정비 등) △불교국가 선수단을 위한 불교관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증진시키고 아시아 평화와 안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사업단)은 대회 동안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에서 열리는 '아시아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해 전세계 아시아인들에게 사찰음식과 불교를 알릴 계획이다. '아시아음식문화축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이란,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유명 셰프들이 직접 참여해 아시아 정통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다. 사업단은 100석 규모의 사찰음식 레스토랑 'Green Wisdom of 발우공양'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을 운영해 발우공양, 소박한 밥상,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하며, '적게 먹고 즐겁게 먹고 채식'을 하자는 3소식 캠페인도 전개한다. 방문객 100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 스님과 함께 즐기는 사찰음식 강연도 마련된다.

사업단은 "10개국이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사찰음식이 독자적인 음식의 영역으로 발전한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인에게 사찰음식이 종교를 넘어 한국의 문화로 다가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 지사 모 집

현대불교신문 지역 주재기자 및 지사장을 모집한다

모집 지역 및 부문

- 부 산: 부산지역 일원에서 활동할 주재기자 및 지사장
- 중 청: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활동할 지사장

지사 사업 내용

- 지역 내 독점 구독 확장 및 광고 수수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 활동 지원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친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단체장) 다만, 주재기자는 포교활동계획서, 추천서 제외
- 제출기한: 모집 완료시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제출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사
문 의: 권리부 서훈진 부장
전 화: 02)2004-8204 팩 스: 02)737-0698
이메일: cgseo@hyunbul.com

1008호 INDEX

사방세계 5
인천아시아게임 선전기원 템플스테이



종합 2·3
ACRP,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합의

지리산 4대 종교인 '세월호 천일기도' 아름다운동행, 모금전문기관으로

신행 6
자비선명상센터 오색차 명상체험

학술문화재 9
<불교평론> 1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환수하면 무엇하나... 10년간 1% 문화재로 지정

한선교 의원,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지적

지난 10년간 국외문화재가 4732점 환수됐지만 국보 등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1%에 불과하며 전시조차 대부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의원은

8월 25일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국외소재 환수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단 5건(52점)뿐이라고 밝혔다.

또 대국민 공개 빈도도 낮았다. 국

립중앙박물관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환수된 문화재의 31%인 1510점을 소장하고 있지만, 전시된 환수 문화재는 219점으로 14.5% 수준에 그쳤다.

이 중에는 불교계의 노력으로 2011년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왕조 의궤 도' 들어갔다. 조선왕조의궤는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대국민 전시도 딱 한번 이뤄졌다.

한 의원은 "국의 문화재에 대한 환수 이후에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렵게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재인 만큼 해당부처는 환수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ng.co.kr / E-MAIL : sungjongsang@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대한민국 명장)

이 사람이!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번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겠습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